

추석 연휴 인천공항 이용객 118만여명



올 추석 연휴 118만명이 넘는 인파가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공항공사는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21일부터 26

일까지 6일간 총 118만327명의 여객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연휴 하루평균 여객은 작년 추석연휴(17.9.29~10.9)보다 5.1%가

21일부터 6일간 하루 평균 19만7천명 예상
출국장 22일 · 입국장 26일 가장 혼잡 할 듯

증가한 19만7206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출국장이 가장 혼잡한 날은 22일로 12만656명이 이용할 것으로 보이며, 입국장은 28일(11만4214명)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공사는 이 기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400명의 특별근무 인원을 현장에 배치해 터미널 혼잡에 대비한다. 우선 출국장의 혼잡을 막기 위해 인천공항 1터미널(T1) 5번 출국장을 오전 6시 조기 개장하고, 1터미널 4번과 2터미널(T2) 2번 출국장을 24시간 운영한다. 아울러 셀프체크인 기기 282대

(T1 108대, T2 174대)와 셀프백트롬 기기 62대(T1 14대, T2 48대)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자가용 이용객을 위해 4만 1184명의 임시 주차장을 확대 운영하고, 귀경객이 몰리는 24일과 25일 공항철도의 막차시기를 새벽 1시까지 연장운행한다. 공사 정일영 사장은 "올 추석 많은 여객들이 인천공항을 찾는 만큼 대중교통의 이용을 당부한다"며 "스마트 서비스를 활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인천공항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스

서울 '도시텃밭' 7년새 6배 늘었다

맞춤형 클리닉 운영

서울시는 체계적으로 텃밭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총 7033개소(일반텃밭 765개소·상자텃밭 6268개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텃밭관리 클리닉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운영은 텃밭 운영자(시민)의 요청에 따라 도시농업 전문가가 텃밭의 문제요인을 진단하고 텃밭의 문제 요인에 맞춘 1대 1 맞춤형 처방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19개 자치구에서 텃밭관리 클리닉을 400여 개소에서 진행하고 있다. 토지개량, 재배교육,

친환경방제제 처방 등이 주로 처방되고 있다.

도시텃밭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29헥타르(ha)로 시작된 도시농업 공간(자부리텃밭, 학교텃밭, 심심텃밭 등)은 지난해 축구장의 238배 규모인 170ha로 증가했다.

송임봉 서울시 도시농업과장은 "농작물의 맞춤형처방을 통해 도시텃밭을 잘 관리하고 풍성한 수확물이 보장돼 농사의 즐거움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텃밭관리 클리닉을 확대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올해 서울 도심서 생산한 꿀 2365 l

1.5억 어치...제12회 세계슬로푸드페스티벌서 도시 양봉 소개

2012년 5월 5통으로 시작한 서울 도시양봉사업이 60배가 넘는 285통 규모로 성장했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영 양봉장과 민간단체 어반비즈서울등은 명동유네스코 회관 옥상 등 32개소에 벌통 285개를 두고 있다. 이 벌통에서 올해 들어 생산한 꿀은 2365l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억5000만원이다.

시는 양봉문화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꿀벌 생태, 꿀벌 관찰, 채밀, 벌꿀을 이용한 제품 만들기 등이다.

시는 "양봉은 도심 생태계의 복원 척도가 된다. 꿀벌의 수가 증가할수록 꽃의 발화율도 높아져 열매도 많이 맺을 수 있다"며 "그에 따라 곤충과 소형 새들이 도시로 다시 유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도시의 생태계 복원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서울시의 도시양봉 발전과정과 성공사례는 143개국 농업인, 목축인 7000여명이 모이는 제12회 세계슬로푸드페스티벌(Terra Madre Salone del Gusto)에 소개된다.

행사는 20~24일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린다. 서울시 도시양봉 사례는 도시양봉에 관한 연구(City bees - A look at urban beekeeping)를 주제로 한 학술토론회(22일)에서 발표된다. 어반비즈서울의 박진 대표가 발표자로 나선다.

송임봉 서울시 도시농업과장은 "1000만 인구 대도시 서울에서 성장하는 도시양봉 사례를 전 세계에 공유하고 도시 생태계 복원의 척도인 도시양봉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수도권 소형아파트 공급 '태부족'

비싼 서울집값에 이동인구 급증
지식분기 후 소형 이사 老부부↑
10년간 소형 거래 119만건 불구
공급 18만건...수요대비 5분의 1

<10년 간 수도권 소형아파트 추이>

지역	거래량(건)	공급량(세대)
서울시	273,242	85,081
경기도	595,104	79,177
인천시	328,015	22,465
전체	1,196,361	186,723

*자료원: 부동산114, 거래 및 공급 2008~2017년

#1. 지난 5월 경기도 동안구 평촌 어반인피스트의 일반분양 1138세대에 모인 청약자는 모두 5만 8690명이다. 이례적으로 전용 59㎡ 이하에 청약한 사람이 전용 84㎡ 청약자보다 많았다. 실제 59㎡이하에는 3만7839명이 모였고 84㎡에는 2만821명 모였다. 59A타입에는 2만6855명이 청약하면서 전체 청약자의 45% 이상이 한 타입으로 몰렸다.

최근 수도권에서 소형아파트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신혼부부들이 서울 집값이 비싸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늘고 있고 자식들을 분가시킨후 노부부들이 소형 평수로 이사하는 사례도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도권의 경우 건설사들이 주로 소형보다는 대형 평수의 주택을 공급하고 있어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소형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치솟고 있다.

18일 부동산 114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서 거래된 소형아파트는 총 119만6361건이다.

반면 수도권에 공급된 소형아파트는 18만6723세대로 수요 대비 공

급은 5분의 1 수준이다.

안양시의 경우도 소형아파트(전용면적 60㎡ 이하)에 대한 수요가 높다. 안양시에서 한 해 거래되는 소형아파트는 평균 4742건(10년 평균)이지만 지난 10년(2008~2017년) 간 공급된 소형아파트는 4307세대에 불과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1년 단위로 본다면 매년 430세대가 공급된 셈인데 수요 대비 공급이 적다 보니 수급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면서 "안양시뿐 아니라 수도권 전체로 확대해도 소형아파트 수요는 넘쳐 나는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의 경우 10년 동안 32만8015건의 거래가 있었지만 실제 공급된 소형 아파트는 2만2465세대에 그쳤다. 경기도의 경우도 59만15104건의 거래가 있었고 공급은 7만1917 세대에 불과했다.

그나마 서울에서는 수요 공급의 차이가 가장 적었다. 같은 기간에서 서울에서 거래된 소형 아파트는 27만3242건인데 반해 공급은 8만15081세대가 됐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절반 정도는 이뤄졌다.

뉴스스

인천시-교육청, 내년 중·고교 신입생 5만2000명 '무상 교복'

사립유치원 만 3~5세 원아 3만2000여명 무상 급식

인천시와 교육청이 내년 3월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무상교복 사업을 추진한다. 중·고생에게 동시에 교복비를 지원하는 것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인천시가 최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18일 인천시의회 1층 로비에서 이용범 시의회 의장, 도성훈 인천교육감, 박형우(계양구청장) 인천지역군수·구청장협의회장, 송광식(동구의회 의장) 인천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장과 '교육 협치사업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양 기관은 공동선언에 따라 내년 3월 중·고교 신입생 5만2000여명에게 각각 30만1000원의 교복 구입비를 지원한다. 전체 지원금 157억원은 인천시와 군·구, 교육청이 지출한다. 예산 부담 비율은 시·군·구 50%(78억원), 교육청 50%(78억원)이다.

시와 교육청은 또 내년 3월부터 사립유치원 만 3~5세 원아 3

만2000여명에게 무상급식을 시행한다. 사업비 228억원은 양 기관이 협의해 부담한다.

초·중·고교 무상급식 식품 구입비도 5~8% 인상해 급식 질 개선에 나선다.

박 시장 등 5명은 공동선언을 통해 ▲어린이집·유치원~고등학교 무상교육 ▲안심교육 ▲평등교육 ▲미래·혁신교육 ▲인천사랑 전자상품권(INCHEONer 카드) 활성화 협업 등 5개 사업 추진을 약속했다.

박남춘 시장은 "교육특별시 인천 조성을 위해 교육청, 시의회, 군·구와 협력하겠다"며 "인천이 전국에서 아이 키우기에 가장 좋은 교육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공동선언으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교육특별시 인천을 만드는 길에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스



지역공감·미래창조·정통대중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완도군 e-shop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 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